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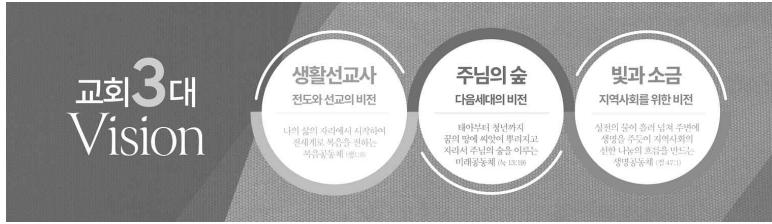
■ 연산교회 사명선언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고(신6:7), 이것이 곧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다음세대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길은 부모가 자녀에게, 장년이 청년과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적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임을 알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온세대예배와 가정예배에 힘을 쏟는다.

■ 연산교회 3대 비전

생활 선교사, 주님의 빛과 소금



예배안내

주일예배		주중모임	
오전 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
오후 예배	오후2시30분	수요기도회	저녁 7시
청년부모임	오후12시30분	전 도 대	화 오전10시 목 오후 3시
꿈땅	오전11시 오후 1시	충보기도	정해진 시간
꿈나무	오전11시 오후 1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92 • 051)862-1172 • www.yeonsanch.co.kr • 유튜브 : '연산교회' 검색	
온세대 예배	매월 넷째 주일(오전예배)		
온가족새벽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전6시)		

성기는 분들

교역자	장로	예배설김
위임목사 김지원	시무장로 양천식 한상무 이민주 이영선 김인모	지휘자 박보희 최희숙 서희경 권승이 김해든
부목사 김동일 유명희	은퇴장로 권태환 이재홍 임근무 김재영 정찬일 조미숙 황성국	오르간피아노
전도사 박새향 협동전도사 정성광		

공동체 소식

교회소식과 교우소식을 전합니다.

■ 예배 및 모임 ■

1. 70대이상(여) 현신예배 오후예배. 글로리아 출
2. 예산위원회 오후예배 후. 소그룹실3(3층)
 - 대상 : 당회원 및 2025년 제작 부서장
3. 1남선교회 정기총회 오후예배 후. 세미나실1(4층)
4. 세례교육 오후1시. 소그룹실2(5층)
5. 새가족 환영회 오후4시30분. 식당(2층)

■ 교회소식 ■

1. 대림절3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성탄)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2. 성탄절 예배 및 행사 일정

- 성탄축하행사 12/21(주일) 오후2시30분. 글로리아 출
 -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다음세대교회, 연령별, 가족, 개인 누구든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 신청서는 5층 로비에 있습니다.
- 성탄감사예배 12/25(목) 오전11시. 글로리아 출
 - 크리스마스 칸타타, 세례식

3. 슬기로운 교회생활

- 한강라면 기계를 사용하실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반 교우들이 한강라면을 이용할 경우, 심대라면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2,000원 이상 모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4. 떡국떡 판매 여전도회 연합사업으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 목적 : 교회식당 김치냉장고 구입 건 • 가격 : 1봉지 1만원
- 384 김종분 집사 • 385 성영례 권사
- 떡국 제공 박 력(박새향 전도사, 한혜주 사모 아들). 첫 예배 감사
- 주방봉사 이영선 성영례 윤경민 이경아
- 식당봉사 이민주 표영숙 박준형 오미희

■ 새가족 등록 ■

010. 손재혁 성도(청년부, 김미숙 권사)
011. 강신범 성도(벤엘 목장, 목요전도대)
012. 오운로 성도(베다니 목장, 엄정임 집사)

■ 교우동정 ■

1. 입원 정현진 권사(베들레헴 목장) 부산의료원 611호

■ 담임목사 동정 ■

1. 노회 임부장 수련회 12/16(화) 오전10시. 안락교회

교회 금주 공동기도제목

모든 공예배시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 교회 - 다음세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심대라면 사역을 위해)
- 나라 - 사회의 수많은 갈등이 봉합되고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 성도 - 일상에 감사가 넘치고, 삶의 평화가 임하도록

주일예배

(대림절3)

오전 11시
김지원 목사

* 예배로 부름	요4:24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찬 양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다 같 이
* 참회의 기도		다 같 이
* 사죄의 선언	사1:18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경 배 와 찬송	다음세대 찬양팀	다 같 이
공 동 기 도		다 같 이
기 도		한 상 무 장로
찬 양	왕의 왕께 영광	할렐루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인 도 자
성 경 봉 독	빌3:20,4:6~7(신322p)	인 도 자
말 씀 선 포	『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	김 지원 목사
찬 송 및 봉 헌	나는 믿노라	다 같 이
결 단 의 기 도		다 같 이
* 봉 현 기 도		김 지원 목사
* 축 도		김 지원 목사

* 표시는 일어섭니다.

다음주 담당자

다음 주 기도	봉 사
주일예배	정윤미 권사
오후예배	성탄축하행사
수요기도회	주방봉사
	김인모 서분이 이경화 이선영 이영선 성영례 윤경민 이경아

오후예배

오후2시30분 / 글로리아홀

수요기도회

저녁7시 / 글로리아홀

<70대이상 여 헌신예배>

인도 : 조미숙 장로(회장)

- 경배와찬양 | 다같이
- 기 도 | 최진숙 권사(총무)
- 특 송 | 70대이상 여 회원들
- 교회소식 | 김지원목사
- 사업보고 | 최진숙 권사(총무)
- 성경봉독 | 이연전 권사(서기)
골1:15~17(신324p)
- 설 교 | 김지원 목사
- 『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
- 봉헌기도 | 박영신 권사(회계)
- 봉헌찬송 | 211장
- 죽 도 | 김지원 목사

• 경배와찬양 | 다같이

• 기 도 | 이은영 권사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요15:7(신173p)

• 설 교 | 김지원 목사

『 기도로 부자됩니다! 』

• 중보기도회 | 다같이

• 죽 도 | 김지원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5시30분 / 글로리아홀

아돌람 하우스 현황

- 역대상 -

김지원 목사

< 이경혜 선교사를 위한 기도 >

- 부산에서의 모든 일정이 안식과 쉼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와 진료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는 주소서.

12월 교회력 및 사역일정

선교사역

- 12/14(주일) 대림절(3) 예산위원회
70대이상(여) 헌신예배
- 12/21(주일) 대림절(4)
성탄축하행사
- 12/25(목) 성탄감사예배, 세례식
- 12/27(토) 온가족새벽기도회
- 12/28(주일) 온세대예배 목장모임

• 국내교회 : 해운중앙교회, 물댄동산교회
능력과평강교회• 선교단체협력 : CP, WEC
• 해외선교이준기, 이은실(파송-캄보디아)
양 파블루스 선교사(후원-T국)
이상주 선교사(후원-필리핀)
아돌람 하우스(선교사 쉼터)

목장모임

목장모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설전4:1~12

사도신경

찬송

설교말씀

사도신경으로 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되길 원하네, 288장, 455장 중 택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나, 여로보암 2세 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왕들을 “악한 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7절)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 우리의 거룩 / 우리를 부르신 목적 –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입니다. 사실 대살로니가 지역은 음행이 당연시되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에 살던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주제는 둘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비추어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거룩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은 바로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품위있게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새번역본 참조)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또 한 가지 문제는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품위있게 살아라”입니다. 사람의 품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언행’,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에 품위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동에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을 말씀합니다. 즉, 사람을 대하는 덕의 품위, 넘치는 것 앞에서의 절제의 품위, 어려운 일 앞에서의 인내의 품위, 육신의 향락이 아니라 경건으로 삶을 다스리는 경건의 품위,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형제 우애의 품위,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사랑의 품위입니다.(벧후1:4-7)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의 품위를 가지고,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인 됨의 품위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에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육신을 쫓아가는 삶으로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으로, 품위 있는 언행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2. 품위있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무엇인가요?

☞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나누세요!

1.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2. 품위있게 살기 위해 우리 안에 더욱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향기로운 예물

십일조

강석주 강영선 김금지 김미숙 김성분 김 육 김종분 김태순
나영희 박보희 박준형 서분이 순인정 신승준 양천식 이경화
이보영 이영란 이영선 이재홍 이종선 이지윤 이한주 이호진
이효성 전월숙 정성광 정숙자 정찬일 정창식 정현진 진영림
최정옥 최정희 최해관 최희숙 추경숙 황수향 황신숙 무명2

감사헌금

강석주 권태환 김미숙 김선용 김성분 김 육 김은호 김인수
김재영 김태순 나영희 박운유 윤경민 윤병희 윤옥자 이보영
이봉엽 이영란 이영선 이재홍 이종선 이지윤 이한주 이호진
이효성 전월숙 정성광 정숙자 정찬일 정창식 정현진 진영림
최정옥 최진숙 한상무 황성국 황수향 황신숙 황점옥 무명

선교헌금

김남표 김복순 김성분 김 육 김의수 김화숙 나영희 박성애
박은희 서분이 서옥선 송정숙 정숙자 정찬일 정현진 최정옥
최진숙 추경숙 한상무 황성국 황수향

전도헌금

김남표 김복순 김성분 김의수 김재영 나영희 박성애 서분이
서옥선 정숙자 정찬일 최정옥 한상무 황성국 황수향

장학헌금

김남표 김종분 박성애 박은희 정숙자 정현진 추경숙 한상무
황성국 황수향 황화남

구제헌금

김금지 김남표 김 육 김화숙 나영희 박성애 정숙자 최희숙
한상무 황성국 황수향

건축헌금

강영선 강철동 김남표 김복순 김성분 김 육 나영희 송정순
정숙자 정찬일 최정옥 최희숙 한상무 황성국 황수향 그린나래

주일헌금

장년부

온라인 현금계좌

현금하시는 목적에 맞는 계좌에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헌금(십일조, 감사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1-02 연산교회
- 특별헌금(전도, 선교, 구제, 장학) – 부산은행 113-2012-0654-01 연산교회
- 건축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7-00 연산교회